

※ 특별연재 ② ※

마음과 힘 (2)

Psychodynamics in dentistry

九宜齒科醫院 院長

金 潤 煥

II. 方法論

1. 言語 分析

(1) 序 論

分析의 方法은 現代科學에서 널리 사용되는 西歐的인 方法이다.

newton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보고 이것은 地球가 사과를 끌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結論을 얻고 空間的 變化를 機械學的으로 解析하여 運動의 法則을 證明하였다. 이를 위하여 newton은 微積分을 創案하였는데 微分學은 分析(analysis)이고 積分學(integration)은 統合이다. 이 newton 力學은 物理學의 基礎일 뿐 아니라 다른 自然科學分野에 지대한 影響을 미쳤다. 따라서 自然科學에서 分析法을 導入하였으며 化學에서 定量分析이나 定性分析을 하게 되었고 科學의 發達과 함께 分析器械의 開發이 促進되었다 電子顯微鏡 粒子加速器 X-ray 등 物質을 分解할 수 있는 性能이 좋은 器械가 開發됨으로써 物質을 細分하여 觀察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發展은 分析 方法의 發展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物質을 基準으로 細分된 自然科學의 여러 分科學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들 分科學들은 대체로 固有한 分析法을 適用하게 된다. 應用科學인 醫學에서는 自然科學의 여러 分析法을 導入하게 되었다. 그런데 醫學에서는 物質을 對象으로 한 自然科學의 分析法 뿐만 아니라 抽象的 概念을 對象으로 한 精神現象을 分析하는 精神分析法을 導入하고 있다. Freud는 神經症(Neurosis)患者를 醫學的으로 治療하는 方法으로 精神分析(Pschoanalysis)을 創案하였는데 이는 分析의 方法이다. 이 精神分析의 方法은 醫學뿐 아니라 哲學, 心理學, 言語學, 教育學, 宗教 등 人文社會科學分野에 影響을 미쳤으며 이 分析法을 널리 應用하기에 이르렀다. 自然科學이 物質을 對象으로 하여 唯物論的인데 反하여 精神分析의 分析法을 導入한 人文社會科學과 精神醫學은 唯心論的인 것이 되었다. 이 두

部類의 學問이 똑같이 分析의 方法을 썼으나 前者는 物質을 對象으로 하였고 後者는 마음을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相反된 見解를 갖게 되었다. 生命現象을 究明하기 위해서는 唯物論的의 思想과 唯心論的의 思想이 잘 調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하므로써 몸과 마음의 有機的關係를 究明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齒醫學에서도 精神分析의 方法論을 導入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自然科學的인 方法은 物質을 分解하는 過程에서 生命現象이 사라지므로 精神現象을 分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살아 있는 狀態에서 精神現象을 概念的으로 分析하는 方法을 適用하는 것이 現實的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對象으로 해야 하며 사람에게만 特有한 言語를 材料로 하면 좋을 듯하다. 分析材料으로써의 言語는 文字上의 意味만이 아니고 精神現象에 含蓄된 概念을 뜻하기 때문에 表情과 行動도 包含되며 教學的으로 表現된 여러 資料들도 分析材料가 될 수 있다.

(2) 精神分析

「Jung 자신도 말했듯이 主觀的 經驗의 方法에 依한 心理學說에 있어서는 概念이 그의 學說을 대변하는 유일한 根據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지 않을 수 없고 그 概念의 意味와 前提를 明確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의 特性을 說明하는데 있어서도 자기 그 特徵을 일정한 말로 表現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重要な 것은 그 말, 즉 用語가 아니라 그 內容, 즉 "뜻"이다」.

Freud가 처음 使用하기 시작한 用語에는 id, 自我, 超自我, 말의 잘못, libido, Oedipus Complex, 固着, 抑壓, 抵抗, 轉移, narcissism, 投射, 退行, 口腔性慾 등이 있는데 이들 用語의 概念은 Freud 自身이 精神分析을 하여 얻어진 結果이다. 이러한 分析結果로써 얻어진 用語로 精神現象을 說明할 수 있는데 이러한 說明은 精神分析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精神分析은 主觀의 經驗의 方法이기 때문에 分析者自身의 精神對象을 理解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分析家は 無意識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態度가 重要하다」¹는 것이다 無意識이란 抽象的 用語는 無意識을 意識化시켜 본 사람만 그 眞意를 알 수 있다. 이러한 無意識의 概念은 文字上으로 解釋한 意味와는 다르다 이와같은 抽象的 用語로 된 分析結果는 體驗을 통한 自己分析을 意味하며 分析家自身의 精神現象을 意味한다.

Freud는 처음에 催眠術을 利用하였으나 뒤에 自己分析과 自由聯想法를 썼다 自己分析은 自己自身을 對象으로 삼은 것이며 神經症(Neurosis)患者를 對象으로 하였을 때는 對話나 꿈을 分析材料로 使用한 것이다. 이 對話中에서 患者의 이야기가 分析材料가 되고, 이를 分析家가 分析하여 患者의 治療의 效果를 기대하면서 分析家가 患者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分析家의 이야기는 分析結果라고 할 수 있다 이 分析過程中에 分析方法에 該當되는 것은 分析家의 精神活動에 의한 것이므로 分析方法을 說明하려면 自己分析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精神分析家에게서 여러 해 동안 教育 分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다만 Freud는 自己 스스로 自己分析方法을 創案한 사람이다 그리고 東洋의 禪師들도 이와 비슷한 方法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은 自己分析은 體驗이며 言語로써 說明하기가 困難하다.

「Freud는 “내 자신이야말로, 내가 가장 取扱하기 어려운 患者였다”고 告白한 일이 있었다」²고 한다. 이는 自己分析이 어렵다는 것을 意味한다.

自己分析을 自然科學의 分析實驗에 比喩하면 分析者는 分析器機에 該當된다 마치 分析器機가 物質을 分解하는 것과 같이 分析者는 自己의 精神現象을 分析한다 그런데 機機는 一律的인 性能을 갖는 反面에 사람은 精神活動이 復雜하고 多樣하기 때문에 모든 分析家의 分析結果가 一律의일 수 없고 多樣하다 그래서 精神分析學에도 여러 學派가 있고 또 分析이라는 같은 方法을 쓰기도 分析哲學에서는 哲學的 觀點에서 分析하고 言語學에서는 文字上에 意味를 分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齒醫學에서 精神分析의 方法을 導入하여도 精神分析學에서와 같은 結果를 얻는 것은 아닐 것이다. 醫學에서도 精神分析을 하지만 精神醫學(Psychiatry)와 精神分析學이 다르고 精神神經科醫師와 精神分析家가 다르다 나는 精神分析家가 아니며 따라서 여기서는 精神分析의 分析法을 導入해 보고져 할 뿐이다.

나는 自己分析을 經驗한 精神分析家의 著書를 읽으면서 分析法을 배웠는데 이것은 그 著書의 文字解釋만으로 可能했던 것은 아니며 내 自身에게나 齒科患者에게 適用해

본 것이다.

對象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나를 찾아 온 齒科患者이며 分析材料는 患者의 말이나 表情, 行動 등이다. 이것은 精神分析學에서 西歐人 神經症患者를 對象으로 하고 꿈을 材料로 한 것과 다르다. 더욱이 場所는 治療診療室인데 그 분위기가 훨씬 다를 것이다 또 때로는 같은 主題의 여러 글을 材料로 하여 比較 分析한 것도 있는데 이때는 著者가 對象이 될 수도 있었다 글을 材料로 한 것 가운데나 自身과 比較 分析한 것도 있다.

(3) 우리말의 特徵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애 잇빨을 좀 꺾 뽑아 주시요 밤에 이빨이 아프다고 울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은 자기 딸의 健康을 念慮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이 잠을 잘 수 없어서 자기 딸의 齒牙를 怨望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 말의 抑揚도 다르지만 그 表現만 보아도 그 心理 狀態를 알 수 있다 “잇빨” “꺾”이란 表現들은 憎惡感을 나타낸다. “이놈의 잇빨”이라고 할 때 그 抑揚이 높으면 그 齒牙를 자기 몸의 一部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敵으로 생각하여 敵對感을 갖는 境遇도 있다 “이” “잇빨” 등과 같은 우리 말은 感情的 表現을 할 때 쓰이는데 “잇빨”은 抑揚이 高調된 狀態다 그러나 “이”가 同義語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잇빨”로 表現할 때는 강한 語調를 띠지 않는다. 反面에 “齒牙”는 理性的인 表現에서 쓰는데 漢文이 象形文字이기 때문에 글로 表現할 때 主로 使用되고(言) 말로는 有識한 사람이나 有識한 척 하는 사람이 쓴다.

“계집애”를 “少女”, “늙은이”를 “老人”, “나이를 “年齡” 등으로 表現할 때 文字上 意味는 같으나 마음의 狀態는 다르다 이들도 우리 말은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意味를 갖는 反面에 漢字로 된 말은 상대방을 尊敬하는 意味를 갖고 있다.

오래 전에 일어났는데 어떤 患者가 “이똥”이란 말을 하였다. 그 患者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여서인지, 구수한 情感 같은 것을 느꼈다. 그 후에 患者에게 “이똥”이란 말을 해보지는 못했으나 만일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患者는 더럽다는 事實을 實感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齒石을 除去하고 싶은 衝動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말에는 感情的 表現을 多樣하게 할 수 있는 用語가 많다 “빨갳다” “셋빨갳다” “붉다” “불그스레하다” “불그스레하다” “발그레하다” “뽀갓 뽀갓하다” “뽀갓뽀갓하다” 등과 같은 表現들은 情緒的 感情을 잘 나타낸 것이다 “빨갳다”는 事實은 그 物質의 性質自體가 아니고 그 物體에서 反射된 빛이 빨간 色을 내는 波長을 갖고 있

음을 意味한다.

위에 表現들은 빨간 色을 내는 빛의 波長을 다시 細分하여 主觀的으로 感知하였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눈을 刺戟한 radiant energy를 定量的으로 感知하였음을 意味한다.

“熱이 있다” “熱이 없다” “마음이 弱하다” “아가 弱하다” “心臟이 弱하다” “強心臟이다” 등과 같은 表現은 힘의 量的의 差異를 主觀的으로 認識할 수 있음을 暗示한다. 여기서 基準點은 “없다” [無 或은 零]로 表示되며 이 基準點으로부터 離脫된 量이 클수록 健康狀態가 나쁜것을 意味한다. 이 表現들이 數學上으로 表示되지 않았기 때문에 客觀的으로는 그 量의 差異를 判斷할 수 없다. 이와같은 表現들은 無我思想에서 影響을 받은 것 같다 가끔 一人稱인 “나”를 三人稱인 “著者”로 表現할 때가 있는데 이는 無我思想에 의해서 내가 없어졌는데 西歐的인 客觀的表現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가 “著者”로 表現된 듯하다.

英語로 Pain은 名詞로 使用되어 客觀的으로 觀察된 狀態를 表現한다. 卽 Pain은 客體의 性格을 띠고 目的語가 되고 觀察者는 主體가 되어 主語가 된다. 例를 들면 “나는 아픔을 느낀다”라고 表現되는데 우리 말은 “아프다”로 表現되어 主體와 客體로 分離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프다”라는 表現은 主觀的으로 認識된 하나의 事件을 意味한다.

John wheeler는 「측정은 전자의 狀態를 變化시킨다. 우주는 그 다음 걸코 동일하지가 않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것을 記述하기 위하여서는 “觀察者”라는 낱은 말을 지워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參與者”라는 새로운 말을 집어 넣어야 한다. 좀 이상한 意味지만, 宇宙는 參與하여 우주이다」³라고 하였는데 “아프다”라는 表現은 결국 “參與者”로써의 認識自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觀察者가 客體的으로 觀察한 “아픔”이란 表現과는 다른 概念이 될 것이다.

우리 말에 述語가 文障뒤에 오는 것도 主體와 客體를 分離시키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플때 “아”소리를 내는 것은 言語上으로 뜻이 없는 소리다. 그러나 臨床的으로 풀이하면 刺戟에 대한 反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프다는 意味로 볼 수도 있다. 어떤 境遇에는 음살을 부리는 境遇도 있고 아프지 않게 하여 달라는 危險信號일 때도 있다. “아”소리를 내는데 必要한 時間은 神經의 傳達時間과 關係된다. 「刺戟의 強度에 따라서 反應時間은 달라지는데 강한 刺戟일수록 反應時間이 짧다」⁴ (Lele등) 따라서 “앗!” 하는 외마디 소리는 刺戟 強度가 強하고 反應時間이 짧음을 나타내는 반면에 “아 -” 하는 긴 소리는 刺戟 強度가 弱하고 反應時

間이 긴 것을 말한다. 以上의 分析들은 소리의 抑揚이나 強度를 定性的 定量的으로 分析한 것이며 글로 表記하면 “아”字 하나이다. 齒科臨床에서 위와 같은 여러 分析들은 經驗的으로 얻어진 主觀的인 認識이며 客觀的으로 表示하려면 소리의 energy값을 數字로 表記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 말에 尊待들이 있는데 對話中에 尊待말을 쓰는 사람은 陰에 該當되며 해라를 하는 사람은 陽에 該當된다. 이 陰陽도 客觀的으로 表示하려면 記號化하고 그 量을 數字로 表現하여야 될 것이다.

外來語나 數學的 表現들은 대체로 理性的이고 客觀的인 表現들이고 視覺에 의한 것인 반면에 우리 말은 感情的인 表現이 多樣하고 主觀的이며 聽覺에 의한 것이다.

(4) 數學的 表現

input를 入力, output를 出力, gravity를 重力, Speed를 速力, dynamics를 力動學 등으로 翻譯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英語로 된 말은 움직이는 狀態, 卽 運動 狀態를 시사하며, 西洋人이 空間과 時間의 變化를 생각하고 있음을 暗示한다. 반면에 漢字로 된 것은 움직이게 한 힘을 시사하며 東洋人이 힘을 定量的 또는 定性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暗示한다. 이러한 東洋의 思想을 現代化시키기 위해서는 主觀的으로 認識된 힘을 數學的으로 表示하여 客觀化시켜야 될 것이다.

Potential energy가 적은 物質로 부터 順序대로 나열하면 量子→電子나 素粒子→原子核→原子→分子→細胞→組織→器官→個體→人類→地球→太陽系→銀河系→宇宙이다. 質量과 크기가 대체로 比例한다고 보아서 위의 順序는 크기로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의 物質들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을 한 視野에서 볼 수 없다. 例를 들어 顯微鏡下에서 細胞와 隣接 組織을 觀察할 수는 있으나 顯微鏡의 焦點을 變化시키지 않고 다른 物質을 볼 수 없다. 더욱이 두 物質 以上의 動的 狀態를 한 視野에서 觀察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物體의 相對 運動은 思考實驗(thought experiment)를 통해서 推理할 수 있다. 이 思考實驗이 論理性을 갖기 위해서 數學的인 論證이 必要하다 例를 들어 顯微鏡下에서 物體의 動的 狀態를 觀察한다면 空間거리의 擴大되지만 時間은 擴大되지 않기 때문에 그 速度는 擴大率에 比例하여 빨라질 것이다. 이때 速度는 數學的으로 풀어서 實際의 速度를 찾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肉眼으로 觀察한 速度와 比較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主觀的으로 認識된 힘의 量과 客觀的으로 觀察된 時空間의 差異와의 相互 關係를 理解하려면 思考實驗과 數學이 必要하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自然現象을 記述하는데 主觀的인 表現과 客觀的인 表現이 다른뿐아

나라 그 概念도 다르다 이 主觀的인 抽象的 概念을 數學的으로 表現하기 위하여 抽象數學이 發展하고 있다. 東洋的인 主觀的 思想을 公式化하기 위해서는 抽象數學과 같은 現代數學의 導入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齒醫學에서도 數學的 論理를 갖는 表現과 思考實驗의 活用이 要求된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李符永: 分析心理學 一潮閣 1978
 2) Rachel Baker: 자기를 찾은 사람: 학문과 사상과 1978.
 3) Fritjof Capra: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 汎洋社 1979.
 4) J.M.Mumford: Toothache and orofacial pain 2 Nerve impulses and their transmission 1976.

5) E.N. dac Andrade: 아이적 뉴튼: 電波科學社 1977.
 6) 朴異汶: 現象學과 分析哲學 문학과 지성 7-4.876 1976.
 7) 李東植: 노이로제의 理解와 治療: 一志社 1974.
 8) Sigmund Freud: 精神分析入門: 東西文化社
 9) Norman Camero: 性格發達과 精神病理學(L): 中央適性研究所 1976.
 10) 李基周 外: 現代言語學: 翰信文化社 1979.
 11) 金容雲: 數學의 弱點: 電波科學社 1978.
 12) Darrell Huff: 統計의 魔術: 과학과 인간사 1979.
 13) 蘇興烈: 論理와 思考: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9.

〈次號 II. 方法論中 2) 禪에 對하여 記述함〉

各 種 齒 科 材 料 一 切

大宇齒科材料商社

崔 壯 祚 · 崔 南 祚

서울 特別市 中區 남대문로 5가 17의 3

☎ 23-5333